

JOURNAL OF HUMANITIES

人文論叢

제79권 제1호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제79권 제1호(2022. 2. 28)

/

차례

기획논문	인간과 물질 문화의 연결망	
	면, 점, 선 그리고 연결망	김종일 9
	네트워크 시각화와 고고학 자료의 활용 낙랑고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고일홍 49
	역사·고고학 연구를 위한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의 활용 가능성 고대 영산강유역과 가야 권역 출토 구슬 자료를 중심으로	박준영 85
일반논문	황화수창 시고의 작성과 간행	김덕수 119
	1537년 황화수창을 중심으로	
	1910년대 지방 유림의 중국 이주 과정과 귀향의 동인 고찰	한길로 155
	서천 조정규의 봉천 덕홍보 사례를 중심으로	
	근대인이 대면한 이율배반과 자유의 이행 한용운 시의 근대성과 관련하여	김익균 181
	사회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1930년대 후반 동인시지(詩誌)와 시인	이유미·김바로 211
	‘소년’의 발견과 전시되는 ‘국민-되기’의 서사	김희경 247
	한국전쟁기의 (재)구성 염상섭의 『홍염』·『사선』론	유서현 281

	1950년대 염상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과 정치 염상섭의 『대를 물려서』를 중심으로	윤국희 317
	열사에 대한 애도는 불가능한가? 김지하의 『애린 1·2』를 중심으로	최서운 351
	한국 모유 권장 운동의 기원과 전개 소비자 운동에서 의료화와 상품화의 매개로	박승만 397
	모범 소수자를 넘어 이민진의 『과친코』를 통해 본 이주민 소수자 서사의 도전과 과제	나보령 429
	작법을 위한 ‘인물-목표’ 경로 설정의 구체화 방안 연구 인물의 초깃값, 사태의 전환, 서사적 반전의 구성·활용을 중심으로	송아름·박미란 463
	파열음의 함의 관계는 얼마나 유효한가?	이진호 497
	이란계 미국작가의 회고록과 오리엔탈리즘 『테헤란의 톨리타』를 중심으로	정상준 525
서평	시 연구의 방법론적 전회 조강석(2021), 『한국시의 이미지: 사유와 정동의 시학』, 소명출판, 408쪽	정기인 567
	우리는 모두 플루토피아의 시민이다 케이트 브라운(2021), 『플루토피아: 핵 재난의 지구사』, 푸른역사, 783쪽	김효민 577

Journal of Humanities
Vol. 79 No. 1, February 2022

/
Contents

Special Topic: Networks of Human and Material culture

Surface, Point, Line and Network

Kim, Jongil | 9

Network Visualization and the Utilization of Archaeological Data

The Example of Nangnang (Lelang) Tombs

Ko, Ilhong | 49

The Applicable Potential of Using Network Analysis Methods for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Research

Focusing on Ancient Beads Excavated from the Yeongsan River Basin and Gaya Region

Park, Junyoung | 85

Articles

Writing and Publication of Hwanghwasauchang Manuscript Poems

Kim, Deok-su | 119

A Study on the Korean Local Confucian's Process of Migration Bongcheon Deokheungbo and the Driving Force Behind Return in 1910's

Focusing on the Case of Deokheungbo (德兴堡), Bongcheon by Seocheon Jo-Jeonggyu

Han, Gilro | 155

The Antinomy and the Transition of Freedom faced by Modern People

In Relation to the Modernity of Han Yong-un's Poem

Kim, Ig-kyun | 181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to the Poetry Magazines of Literary Coterie and Poets of the Late 1930s

Lee, Yumi and Kim, Ba-ro | 211

Discovery of ‘So-nyeon (少年)’ and Narrative of ‘Becoming a Nation’ on Display

Kim, Hee Kyung | 247

(Re)constructing the Korean War Period

Yom Sang-seop’s *Hongyeom-Saseon*

Yu, Seohyun | 281

Women and Politics in Yeom Sang-seop’s Novels of the 1950s

Focusing on Yeom Sangseop’s *By Inheritance*

Yoon, Kuk-Hee | 317

Is it Impossible to Mourn the Martyr?

With a Focus on Kim Chiha’s *Aerin*

Choi, Seoyoon | 351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Breastfeeding Promotion in Korea

From Consumer Movement to the Medium of Medicalization and Commodification

Park, Seungmann | 397

Beyond Model Minority

Challenges and Paths Forward for the Immigrant Minority Narrative as Seen Through Min Jin Lee’s *Pachinko*

Na, Boryeong | 429

Study of Measures for Concretizing the ‘Character-Goal’ Path Setting for a Creative Writing Method

Focused on the Composition/Utilization of the Initial Value of Characters, the Turn of Events and the Reversal of the Narrative

Song, A-Rum and Park, Mi-ran | 463

How Valid Are the Implicational Relationships between Plosives?

Lee, Jinho | 497

Representing Iran

Memoirs by Iranian Writers in the US

Jeong, Sangjun | 525

Book Reviews

Methodological Turn of Poetry Research

Review of *Image-Thought and the Poetics of the Affect of Korean Poetry* by Cho Kang-sok

Chong, Kiin | 567

We are All Citizens of Plutopia

Review of *Plutopia: Nuclear Families, Atomic Cities, and the Great Soviet and American Plutonium Disasters* by Kate Brown

Kim, Hyomin | 577

人文論叢

제79권 제1호

2022년 2월

기획 논문



기획의 말

/

인간과 물질 문화의 연결망

19세기 초반 근대고고학이 성립한 이후 고고학은 현재까지 남아있는 물질 자료를 통해 과거의 인간의 행위와 사고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20세기 초반까지는 물질 자료를 형태와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물질 자료의 시공간적 분포를 추정한 다음 이러한 시공간적 분포를 인간의 행위와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시도하였다. 유사한 형태의 유물과 유적을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동일한 문화전통에서 제작되거나 사용된 것으로 전제하고 이러한 유사한 유물과 유적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면 이를 ‘유물복합체’(assemblage)로 명명하고 다시 동일한 ‘유물복합체’가 특정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견되면 이를 ‘문화’(culture)로 정의하였다. 특정한 유물복합체 혹은 문화에 속하는 모든 유적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의 유물, 유적을 모두 공유할 필요는 없고 고생물학에서 특정한 종류의 화석이 하나의 시기를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복수의 유적들이 한두 종류의 대표적인 형식화석(type fossils) 또는 지표유물만을 공유해도 하나의 유물복합체 혹은 문화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고학적) 문화는 형식화석의 존재여부에 따라 뚜렷하고 배타적인 경계를 갖게 된다. 만약 특정한 형식화석이 아나톨리아지역과 유럽 지역 혹은 시베리아 지역처럼 하나의 문화로 설정하기 힘든 매우 광대한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경우 이를 인간의 이주 혹은 확산으로 설명한다. 한편 (고고학적) 문화는 민족(혹은 종족) 집단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따라서 (고고학적)

문화의 경계는 바로 민족(혹은 종족)의 경계가 되거나 형식화석의 광역적 분포는 특정한 문화 혹은 민족집단의 이주와 확산의 통로가 된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민족(혹은 종족) 집단은 소수의 대표적인 유물, 유적으로 대표되며 이 유물, 유적의 분포가 바로 특정한 문화와 민족의 영역이나 이주 혹은 확산의 경로로 치환된다. 흔히 한반도와 중국동북지역에서 비파형동검문화 혹은 지석묘문화의 분포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강역이나 이동 혹은 확산의 경로로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법론적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접근은 근대고고학의 성립기에 물질문화의 시공간적 분포를 확인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질문화와 민족집단의 관련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크다. 물론 이러한 경향의 이면에는 19세기를 관통하여 성행했던 유럽의 민족주의 및 제국주의적 관심이 놓여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구스타프 코지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언어 뿐만 아니라 물질문화를 통해 민족의 기원을 찾고자 하는 시도나 유럽문명의 기원, 즉 이른바 원향(Urheimat)을 아나톨리아 혹은 레반트 지역에서 찾고자 했던 유럽인들의 노력은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초기 근대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적 특징을 통해 잘 드러난다.

소위 문화사 고고학으로 불리는 초기 근대고고학의 시각과 방법론은 이를 통해 고고학이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나름의 유용함을 인정받는데 성공함으로써 고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심지어 단일한 근대 민족 국가의 형성이 식민지와 분단에 의해 지체된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민족 기원과 정체성의 강조와 함께 지금까지도 주요한 연구 방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매우 조야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소위 재야사학자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론과 방법론도 여기에서 유래하였으며 비교적 신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고대사 및 고고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연구의 전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비록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만 적어도 이론과 방법론의 측면에서 재야사학자들과 전문연구자들이 상당히 유사하며 따라서 논의의 수준은 논의

로 하더라도 이론과 방법론의 차원에서 양자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196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고고학 사조에서는 문화진화론의 입장에서 문화를 환경에 대한 적응체계로 파악하고 체계이론(system theory)과 신진화론(neo-evolutionism), 그리고 가설연역적 방법을 도입하였다. 특히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계적 추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문화과정(cultural process)을 복원하거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적응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아울러 신지리학의 발전과 함께 공간에서 인간의 규칙적 행동 패턴을 찾기 위한 시도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결과적으로 종래에 암묵적으로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문화사고고학의 이론과 방법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었고 한 두 종류의 ‘형식화석’만이 아니라 유적에서 발견되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가설과 추론의 과정 역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소위 과정고고학(processual archaeology)으로 불리는 이 고고학 사조는 문화의 형성과 유지 그리고 변화과정에서 체계(system)와 기존 체계의 평형(equilibrium 혹은 homeostasis)을 강조하는 대신 개인(individual)의 역할은 무시되고 있으며 물질 자료는 단순히 기록(record)서만 받아들여질 뿐 텍스트(text)로서 그 자체의 능동성과 다의적 해석의 가능성이 고려되고 있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개인과 물질자료를 인과관계와 모델링을 통한 ‘설명’(explanation)이 아닌 해석해야 할 텍스트로 파악하며 텍스트를 통해 인간이 행위주체 혹은 에이전시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그리고 인간 에이전시 혹은 행위주체가 그러한 물질문화를 어떻게 인식하거나 감각하는지 등의 시각 및 접근 방식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시각과 접근 방식은 후기과정고고학(Post-processual archaeology)으로 통칭되는데 여기에서는 구조주의 맑시즘, 해석학, 현상학, 기호학, 젠더연구, 박물관학

등 다양한 이론적 접근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과 물질 간의 이분법적 구분과 인간 중심적인 시각 그리고 지나친 상대주의적 접근 및 실제 검증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1960년대 이전의 문화사 고고학과 1980년대까지의 과정고고학, 그리고 2000년대 이전까지의 후기과정고고학과 같이 비록 특정한 시기에 성행했던 대표적인 연구사조가 존재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이러한 고고학의 주요 사조들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치한 것이 아니라 상호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실제 연구에서는 이 세 연구사조의 접근방식이 혼용되고 있는 현상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고학의 연구경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편으로는 에이전시이론과 실천이론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행위자연결망이론(Actor Network Theory)에서 영향을 받은 신물질론(New materialism)과 대칭적 고고학(Symmetric archaeology)의 등장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물 또한 에이전시 즉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체이며 따라서 인간과 사물은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전체 분석과 동위원소분석 방식 등 자연과학적 분석방법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고고학에 도입되면서 주민집단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이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해석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매우 세밀하고 설득력있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최근 고고학 연구의 흐름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종래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론과 방법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접근 방식의 다양화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양자, 즉 신물질론과 대칭적 고고학과 같은 이론적 접근과 자연과학적 분석 및 이에 따른 연구 성과가 서로 성공적으로 융합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자가 보다 더 강조되거나 후자의 결과만이 중시되는 경우 자칫하면 단순한 주민집단의 이주와 확산이라는 문화사 고고학의 오랜된 문제 의식과 해석의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물론 후술할 얽힘이론(En-

tanglement)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일부 시도되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고 할 수 있다. 필자를 포함한 공동 연구자들이 연결망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학을 포함한 사회과학에서 주로 논의되어 온 연결망 이론은 연구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가시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연결망 이론은 최근 고고학 연구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즉 행위주체로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들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론적 전제와 고유전체 분석과 동위원소 분석과 같은 자연과학적 분석의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한 차원 높은 단계에서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 혹은 사물의 의미와 중요성을 ‘관계’의 맥락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은 문화사 고고학 뿐만 아니라 각각의 사조에서 발견된다. 또한 방사성탄소연대를 포함하는 각종 자연과학적 분석 결과가 고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해석의 해상도를 비약적으로 증대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어 문화사고고학에서 하나의 무덤에서 동시에 발견되는 공반유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 초기 과정고고학에서 주거지나 무덤과 같은 하나의 유구에서 어느 특정한 형식화석이나 대표유물을 강조하는 대신 발견되는 모든 유물들의 공간적 위치와 관계를 포함한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자 시도하는 (유물의) 결합적 접근(conjunctive approach), 그리고 가족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포함하여 후기과정고고학에서 주목을 했던 범주(category)에 대한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과 유적 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편년과 (계량적) 분석을 통한 패턴의 확인 그리고 분류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써 받아들여졌을 뿐이다. 자연과학적 연구 성과 역시 실증성을 바탕으로 고고학 내에서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했다.

연결망이론이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요리책’이

나 ‘만병통치약’은 아니며 필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결망이론이 단순히 고고학의 외부에서 발전하여 고고학 내부의 필요에 따라 고고학 연구에 도입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내부에서 이미 연결망 이론과 유사한 내용의 시각이 존재하고 있으며 연결망 이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는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해석을 위한 문제제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인간과 물질문화의 연결망’이라는 주제 아래 기획된 세 편의 논문은 각각 연결망이론의 이론적 배경과 향후 논의 과제, 가시적 표현 방식의 구체적인 장점과 한계, 그리고 실제 역사자료에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해석의 가능성과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제시되는 논점과 잠정적 결론은 최종적인 연구결과가 아니라 향후 다양한 시공간적 차원에서 진행될 본격적인 연결망 분석을 위한 일종의 예비적 검토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